



## “딸기 생산하는 농민이 딸기주스도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밤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딸기 생산하는 농민이 딸기주스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9월 15일자 한국농어민신문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1차 산업에 제조 및 유통 등 2·3차 산업을 결합한 식품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지런히 딸기 농사를 지어 팔면 도시에서 그것을 딸기 주스로 만들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비싸게 딸기주스를 사먹는다”며, “딸기 하는 사람은 딸기 주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그럼 젊은 사람이 와야 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농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안목은 후보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 생산에 따른 소득만으로는 잘살 수 없기 때문에 생산 이후의 2·3차 산업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는 방향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의 2·3차 산업화를 아무 농민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농촌에 나이 드신 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젊고 힘 있다고 가공식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도 선진국의 농민들처럼 조합이나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나 판매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농민들 간의 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농민들은 적어도 도 단위 이상 또는 전국 단위로 하나의 품목별 조

우리 농민들도 선진국의 농민들처럼 조합이나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나 판매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간의 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농민들은 적어도 도 단위 이상 또는 전국 단위로 하나의 품목별 조합이나 회사를 만들어 가공, 판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회사를 만들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굉장한 사업 수완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계는 그렇게 훈련된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가 없습니다.

합이나 회사를 만들어 가공, 판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면 단위로 '잡화점' 품목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편리할 대로 농협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2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최신식 APC를 설치해봐도 농민들이 출하도 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회사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조합이나 회사를 만들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굉장한 사업 수완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계는 그렇게 훈련된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가 없습니다.** 경제사업을 잘한다는 조합도 기껏해야 경제상무와 한 두 명의 직원이 열심히 뛰는 정도입니다. 현대식 APC를 설치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자와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출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량이 없는 APC는 정상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이 되풀

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을 2·3차 산업화 하고, 2·3차 산업화의 이익을 농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단순히 식품 행정권을 농림부에 옮기고, 정책자금을 식품업체에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협동을 해야 제값에 팔 수 있고, 2·3차 산업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교육입니다. 협동조합운동의 창시자 그룬트비히도 농민 교육부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협동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가능한 모든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길**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협동을 해야 제값에 팔 수 있고, 2·3차 산업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교육입니다.  
 협동조합운동의 창시자 그룬트비히도 농민 교육부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협동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가능한 모든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려야 합니다. 최고경영자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와 기능인력도 길러야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지금도 농협에 많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에는 경제사업 담당 임직원이 23,000명이나 있습니다. 농협이 그동안 신용사업에만 골몰하고, 경제사업은 적자사업이라며 마지못해 하다 보니 사업수완이 없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신용사업 이익으로 보충하면 되니까, 죽기 살기로 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리하게 도시에서 젊은 사람을 데려와 '사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경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농협 직원이나, 영농법인의 임직원을 훈련시켜 '사업'을 더 잘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업 문제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돈, 있는 사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

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끈질기게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통령님의 말씀 속에 농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고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대통령 당선 1년이다 되어 가는데, 아직 후보 때 하신 그 말씀, "딸기 생산하는 농민이 딸기 주스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농업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가요?